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호흡기질환 예방

도교육청, 5월 31일까지 도내 200개교 대상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실태조사·성능평가 진행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학교급식 조리종사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해 적극 나섰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5월 31일까지 도내 200개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실태조사 및 성능평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등을 점검해 급식종사자들의 호흡기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따라 급식종사자 정원이 다수인 학교, 급식종사자 정원이 같은 경우에는 식생활관 건축연도가 오래된 학교 순으로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학교 급식조리실에 설치된 후드(유해물질 유입), 덕트(유해물질 배출통로), 송풍기(유해물질 외부 배출능력)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 환기설비 점검표에 따라 집중 점검

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환기설비 노후화로 개선이 어렵거나 송풍기 용량이 부족해 개선이 필요한 설비는 고용노동부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에 따라 개선할 계획이다

이서기 인성건강과장은 “급식조리실 환기설비의 전문점검을 통해 급식종사자들의 호흡기질환을 예방하고, 나아가 급식시설 현대화로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올해 전문점검 미포함학교는 추경예산 반영 등을 통해 환기설비 성능점검 영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양질의 문화콘텐츠 조성 전북고충-에픽, 협약 체결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7일 에픽(대표 서경호)과 교총 회원들의 문화교육 증폭과 양질의 문화콘텐츠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기종 회장을 비롯해 오한섭 사무총장과, 서경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기종 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교육가족들이 양질의 문화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풍부한 문화적 경험을 통한 회원의 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경호 대표는 “특색있는 문화 거리 조성에 이바지하는 청년 문화 기획자로서 전라도권 내 다수의 문화행사 기획 및 운영을 하고 있다”며 “정기적인 행사 운영으로 문화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의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서거석 교육감(사진 왼쪽)이 8일 장상운 교육부 차관을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미래교육캠퍼스 설립 차질 없이”

서거석 교육감, 장상운 교육부 차관에 현안 지원 요청

서거석 교육감이 8일 장상운 교육부 차관을 만나 전북지역 교육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5층 교육감실에서 이뤄진 간담회에는 서 교육감을 비롯해 박주용 부교육감, 김숙 교육국장, 김형대 행정국장, 한승수 정책공보관 등이 참석했다.

서 교육감은 “전북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교육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면서 “미래교육캠퍼스 설립 등 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는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교육감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28일 교육부를 방문해 장상운 차관과 교육복지정책 국장, 지방교육재정 과장, 교육안전정보 국장, 교육시설 과장 등을 차례로 면담했다.

또 1월 12일에는 서울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만나 미래교육캠퍼스 설립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정은성 기자

하려는 미래교육의 핵심시설이다.

이와 함께 전주 에코시티와 군산 디오션시티 등 인구 밀집 지역 내 학교 신설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적극 설명했다.

서 교육감은 “전북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교육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면서 “미래교육캠퍼스 설립 등 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는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교육감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28일 교육부를 방문해 장상운 차관과 교육복지정책 국장, 지방교육재정 과장, 교육안전정보 국장, 교육시설 과장 등을 차례로 면담했다.

또 1월 12일에는 서울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만나 미래교육캠퍼스 설립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8일 창조미래(별관) 시청각실에서 직업계고 학생 해외연수 운영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직업계고 학생 해외연수 소감 공유

9월 17일부터 12월 10일까지 글로벌 현장학습진행... 도교육청, 결과보고회 열어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8일 창조미래(별관) 시청각실에서 직업계고 학생 해외연수 운영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과보고회는 2022년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및 직업계고 기능우수학생 해외연수 사업 결과를 보고하고 참여학생들의 소감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꾸려졌다.

이 자리에서 2023년 글로벌 현장학습 사전교육 학생과 담당교사, 학부모 등이 참여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어학연수와 해외 인턴십 및 다양한 해외체험·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재개된 2022년 글로벌 현장학습은 지난 9월 17일부터 12월 10일까지 호주와 독일에서 진행됐다.

호주 현장학습단은 조리·제과·제빵 9명, 헤어미용 4명, 자동차정비 3명, 용접 3명, 원예조경 2명, 사무회계

2명 등 총 20명이 참여했다. 또 기계 금속 가공기술 강국인 독일로 떠난 학습단은 기계가공분야(CNC) 학생 8명이다

이날 결과보고회에 참석한 서거석 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이 12주간의 해외 현장학습을 통해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됐을 것”이라며 “앞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국제교류 수업, 어학연수, 해외 인턴십 등 다양한 해외연수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네덜란드 글로벌 교육프로그램 진행

전주대학교 삼갈캠퍼스역사공유대학사업단(단장 한동승)은 지난날 30일부터 이날 17일까지 18박 19일의 일정으로 네덜란드 디지털 신기술 선도대학인 한저 실무중심대학(Hanze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과 폰티스 실무중심대학(Fontys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에서 글로벌 융합 프로젝트를 국내 대학 학생들과 공동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전주대를 비롯해 건국대, 경희대, 계원여대, 계명대, 배재대 등 6개 대학 23명이 네덜란드 현지 연구진과 글로벌 융합 캠퍼스 디자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8일 사업단에 따르면 게임콘텐츠학과,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관광경영학과에서 선발된 3명의 전주대 재학생과 타 대학 학생들이 상호협력해 네덜란드 디지털 우수대학의 뛰어난 기술력과 정보를 습득하고, 마이크로디그리 교과목개발 및 운영을 통해 글로벌시장을 선도할 디지털 인재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이에 한동승 단장은 지난 3일부터 네덜란드를 직접 찾아 현지 연구진과 협력해 글로벌 융합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전 세계 100여 개 나라에서 계임을 만드는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각자 모여 즉석에서 팀을 결성해 주어진 시간(2박 3일) 안에 주제에 맞춰 게임을 완성하는 축제인 GLOBAL GAME JAM에 참여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주대 3명의 학생은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실감 미디어 관련 교과목을 같이 수강하고, 또 여러 형태의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돼 좋은 경험을 했다”며 “많은 국적의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사회문화적 차이도 느낄 수 있는 값진 경험을 할 수 있게 해 준 사업단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고교-대학 연계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논의

도교육청·고교·대학 입학처 관계자 협의회

오늘 전주 왕의지밀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9일 전주 왕의지밀서에서 ‘도교육청-고교-대학 입학처 관계자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도교육청 업무담당자 8명, 군산대·우석대·원광대·전북대·전주대 입학처 관계자 14명, 진학담당교사 6명 등 총 28명이 참석한다.

이는 지역내 양성을 위한 대학의 입시 개선 사항과,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교육청·고등학교·대학 입학처가 함께 논의함으로써 지역 대학의 위상에 맞는 대입정책을 마련하고, 도내 고등학교의 진학지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2024 대입을 위한 맞춤형 진학지도 계획 및 교육청-고교-대학 협력 방안 모색 △고교와 대학이 상상할 수 있는 지역 대학 입학정책을 위한 분석과 제언 △지역내 양성을 위한 자유트론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의 단장과 팀장을 맡고 있는 진학지도 전문교사들이 참여해 각 대학의 입학정책을 분석하고, 지역내 대학을 보다 효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주현화 학교교육과정장은 “우수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청-대학-고교 간의 상호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변화하는 대입제도에 따라 지역 진학 현황에 맞는 대입 프로그램 방안을 모색해 지역 학생들이 자신들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오늘 전주 왕의지밀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9일 전주 왕의지밀서에서 ‘도교육청-고교-대학 입학처 관계자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도교육청 업무담당자 8명, 군산대·우석대·원광대·전북대·전주대 입학처 관계자 14명, 진학담당교사 6명 등 총 28명이 참석한다.

이는 지역내 양성을 위한 대학의 입시 개선 사항과,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교육청·고등학교·대학 입학처가 함께 논의함으로써 지역 대학의 위상에 맞는 대입정책을 마련하고, 도내 고등학교의 진학지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2024 대입을 위한 맞춤형 진학지도 계획 및 교육청-고교-대학 협력 방안 모색 △고교와 대학이 상상할 수 있는 지역 대학 입학정책을 위한 분석과 제언 △지역내 양성을 위한 자유트론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의 단장과 팀장을 맡고 있는 진학지도 전문교사들이 참여해 각 대학의 입학정책을 분석하고, 지역내 대학을 보다 효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주현화 학교교육과정장은 “우수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청-대학-고교 간의 상호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변화하는 대입제도에 따라 지역 진학 현황에 맞는 대입 프로그램 방안을 모색해 지역 학생들이 자신들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교원·교육전문직원 인사 발표

3월 1일자 총 2232명 인사 단행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2023년 3월 1일자 유·초·중등 교육공무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인사에서는 교장·원장 승진 47명, 교감·원감 승진 42명, 정년·병예퇴직을 포함해 유·초등 교사 1,138명, 중등교사 1,065명 등 총 2,232명의 인사가 이뤄졌다.

먼저, 순창교육지원청 교육청에 순창 육천초등학교 남상길 교장, 고

창교육지원청 교육청에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유승오 원장, 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 원장에 전주이름유치원 강혜정 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특히 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그린스마트추진단 단장에는 교육혁신과 정혜영 과장, 정책국 정책기획과장에는 임실고등학교 운영 임 교장, 정책국 미래교육과장에 군산비석초등학교 민완성 교장을 발

령했다.

이와 함께 교육국 유초특통수교육과장에는 전주효자초등학교 임대섭 교장, 교육국 중등교육과장에는 봉서중학교 유효선 교장, 교육국 문예체건강과장에는 인성건강과 이서기 과장, 교육국 창의인재교육과장에 미래인재과 이강 과장을 각각 임명했다.

한편, 교(원)장·교(원)감, 수석교사 및 교육전문직원과 신규교사 임명장 수여식은 오는 28일 실시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호원대 교양교육원, 2022 교양교육 워크숍 개최

호원대학교 교양교육원은 8일 온라인 ZOOM을 통해 2022학년도 교양교육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호원대 교양과 관계 교수들이 개발한 ‘축제’에 담긴 세계인의 삶과 문화와 건축학과 한성관 교수가 개발한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 교양 교과목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로 진행됐다. 이는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교·강사들이 핵심역량 기반 교양 교육과정 혁신과 미래 지향적 교양 교과목 개발에 대한 관심과 이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교양 교과목 담당 전임교원 및 교·강사뿐만 아니라 교양교육개발소 위원회 위원, 교양교육운영위원회 위원 등

대학의 교양교육 관계자들이 함께해 교양 교과목 개발 성과를 공유했다.

박진희 교양교육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우리 대학의 교양교육 질 제고 및 개선을 위한 중요한 자리로, 교양 교육 교·강사의 전문성과 교수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추후에도 역량 기반 교양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위해 다양하고 유익한 교양 교과목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